

젊은이들의 코드 따라잡기

- 광수광 목사 / 2003. 4. 7 -

안녕하세요. 청년칼럼의 광수광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이 시대의 잃어버린 청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드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근에 군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군목후배를 만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새로 입영한 신병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면 항상 기독교이니 1위였었는데 이제는 타 종교에 비해 오히려 그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 종교인이라고 기록한 신병들에게 만약 종교를 갖는다면 어느 종교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대다수는 불교와 천주교라고 응답하고 기독교를 선택하는 신병들의 숫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육군사관학교 신입생들을 위한 전도예배에 설교를 하러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육사 생도들을 전도하기 위해 애 쓰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신입생 훈련을 받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의 학생들은 당연히 기독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경보음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할까?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그들의 종교적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일까?

지금 이런 추세로 젊은이들의 교회 이탈 현상이 계속되면 5년 후 10년 후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몇 일 전 저는 god라는 그룹의 콘서트 장엘 다녀왔습니다. 100일간의 콘서트 중에 99회째였습니다. 공연장을 가득 메운 채 네 시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열광하고 환호하고 심지어는 울음까지 터뜨리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몇 개월 전에 티켓을 결코 싸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매진 시켜 버렸고 공연 몇 시간 전부터 와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야광 봉과 온갖 폭죽과 꽃가루들을 준비 해 와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멤버가 솔로를 하면 그 넓은 공연장을 폭죽소리와 꽃가루로 덮어 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도전의식을 느꼈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솔직합니다.

좋고 나쁘고가 분명합니다.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위해선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몇 시간씩 기다려서라도 몇 배나 비싼 양표를 사서라도 그들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 고야 맙니다.

그들에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가치들을 보여 줄 수만 있다면, 그들의 인생을 걸만한, 그들의 젊음을 불 태울만한 엄청난 의미가 그리스도를 믿는 삶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만 있다면 그들은 역사상 그 어느 시대의 젊은이들 보다 더 위대한 영적 부흥의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god 가 아닌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들의 삶을 던지도록 하는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싶다는 강력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대화 할 수 있는 언어를 습득하고 그들의 문화 코드를 읽어내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청년 선교의 위기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리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